

한국어 주격과 대격의 실현 · 비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

- 유정성과 어순을 중심으로 -

이준희

(동국대학교 강사)

<Abstract>

Lee JunHee, 2024. The Realization and Non-Realization of Korean Nominative and Accusative Case Markers: Focusing on Animacy and Word Order. *Korean Semantics*, 8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alization or non-realization of case markers in Korean and to explain their patterns. One of the primary functions of case markers is to distinguish the relationships and roles among arguments in a sentence. From this perspective, if the relationships and functions of arguments are clearly understood, the realization of case markers becomes optional. In other words, when the relationships and roles of arguments can be cognitively inferred, case markers may be optionally realized. Key factors influencing the inference of these relationships and functions include animacy and word order. To verify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the realization of case markers, various scenarios are analyzed and explained.

핵심어: ‘이/가’(‘i/ga’), ‘을/를’(‘ul/lul’), 격(Case), 격조사(Case Marker), 구별(discriminatory), 주격(nominative), 대격(accusative), 실현(realization), 비실현(non-realization), 유정성(animacy), 어순(word order)

* 이 글은 한국어의미학회 제 54차 학술대회(2024년 5월 18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발표한 ‘한국어 격조사 실현 · 비실현에 대하여 -주격, 대격을 중심으로-’를 수정 · 보완한 것이다. 발표회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논의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의 격조사, 그 중에서도 소위 문법격인 주격조사와 대격조사의 실현·비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그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 있다.¹⁾ 익히 알려져 있듯이 한국어는 격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1) 가. 준완이가 밥을 먹고 있어.

나. 준완이 밥 먹고 있어.

다. 익준이가 책을 버렸어.

라. 익준이 책 버렸어.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 격조사는 (1가), (1다)처럼 모두 실현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1나), (1라)와 같이 모두 실현되지 않는 것 역시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특히 구어에서 쉽게 관찰된다. 다만, 언제나 격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가. 정원이이 겨울이를 잡았다.

나. #정원이 겨울이 잡았다.

다. 송화가 흥도를 아껴.

라. #송화 흥도 아껴.

예문 (2가)와 (2다)는 앞선 예문과 마찬가지로 격조사가 모두 실현된 문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2나), (2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선 경우와는 다르게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면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²⁾ (2가)와 (2나)가 문어에 가깝기에, 이들을 문어와 구어에서의 차이로

1) 선행 논의들에서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양상을 명명할 때 각각의 관점과 논리적 근거에 따라 '생략'과 '비실현'을 사용한다. 이 글에서는 해당 양상을 지칭할 때 '비실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한 관점과 논리를 전제하기 때문이 아닌, 해당 용어가 형식적으로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양상을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생략'의 경우 격조사가 실현되는 것이 전제되지만, '비실현'은 말 그대로 격조사가 형식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2) 이 글에서 # 표시는 문법적으로는 성립되나 문장의 의미가 기존과는 달라진 경우를 뜻한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2다), (2라)처럼 문어보다는 구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의미가 달라지기에 적절한 설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글에서는 이를 격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구별 기능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구별은 격이 형식적으로 두 논항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예문 (1)은 형식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기에 격조사가 비실현되는 것이며, (2)는 형식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기에, 격조사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구분 필요성 여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격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구별 기능에 근거하여 한국어 격조사의 실현 · 비실현을 설명하고, 이때의 실현 · 비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주격 조사와 대격조사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2. 격의 구별 기능과 한국어 격조사 실현 · 비실현

이 장에서는 한국어의 격조사 실현 · 비실현 양상을 격의 구별 기능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격이라는 범주는 관점에 따라 통사격, 형태격 등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이 중에서 격 범주를 논항인 명사가 맺는 통사, 의미, 화용 관계를 형태적으로 표시해주는 체계, 즉 형태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김민수 1970, 김기혁 1989, 홍운표 1990, 이익섭 · 채완 1999, 남기심 2001: 64-72, 이호승 2006, 엄정호 2011, 김민국 2016: 41-46, 이준희 2024: 19-29 등 참조). 이처럼 형태격으로 파악하면, ‘이/가’와 ‘을/를’은 주로 주어와 목적어인 관계에 놓인 논항에 결합하여 나타나기에 각각 주격조사와 대격조사로 분석된다.

다만,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된다. 형태격의 관점으로 보면, 격은 형태가 나타내는 것이기에 격 형태가 실현되지 않으면 격도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경우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쉽게 발견되기에, 이 관점으로

보면 이들을 모두 격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격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형론적 관점에서 보면, 격의 주요 기능은 구별(discriminatory)과 식별(identifying)로 정의할 수 있다(Wierzbicka 1981: 56, Comrie 1989: 126-135, Dixon 1994: 11, Song 2001: 156-167, Næss 2007, de Hoop & Malchukov 2008 등). 이 글에서는 격조사 실현 양상을 구별 기능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식별은 결합한 논항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격을 활용한다는 것을 뜻하기에 격조사의 실현 양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구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하겠다.³⁾

구별은 논항 간의 구분을 위해 격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범언어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절 유형으로는 자동절과 타동절이 있다. 이 중 자동절은 핵심논항이 하나이기에 다른 논항과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타동절은 핵심논항이 두 개이기에 두 논항을 구분하여야 한다. 구별은 논항을 구분하는 역할로 격이 기능한다는 것이다. 범언어적으로 주격과 절대격은 영표지로 실현되고 대격과 능격은 비-영표지로 실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격이 구별로 기능하는 주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Comrie 1989: 126-127, Dixon 1994: 11). 각 논항에 다른 표지가 실현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논항을 구분하는 방법이기기는 하지만, 두 논항 중 한 논항에 표지가 실현되는 것도 논항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격과 절대격은 영표지로 실현되고 대격과 능격은 비-영표지로 실현되는 경우가 범언어적으로 일반적인 것은 격이 논항 간의 구분을 위한 것이기에, 굳이 두 논항 모두에 격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범언어적으로 주로 관찰되는 격 체계가 주격-대격 체계와 능격-절대격 체계인데(Nichols 1992, Siewierska 1996, Song 2001: 156-157), 이 역시 격의 구별 기능의 주요 근거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형론적으로 주요한 절 유형은 자동절과 타동절이다. 그리고 이들 절에

3) 식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구별과 식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이준희(2024: 32-38)에서 정리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실현되는 논항은 각각 자동절의 주어, 타동절의 주어, 타동절의 목적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논항을 표시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각 논항의 기능 · 관계에 부합하는 격표지를 각각 실현하는 것이다. 즉, 자동절의 주어는 자동절 주어에 부합하는 격표지로, 타동절의 주어와 타동절의 목적어도 각각에 부합하는 격표지로 이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논항을 구분하는 기능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방법은 각 핵심논항을 명확히 표시하는 장점이 있으나, 세 종류의 격표지가 필요하여 경제적이지 못하다. 타동절의 핵심 논항은 두 개이기에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자동절의 핵심 논항은 하나이기 때문에 구분할 다른 논항이 없기 때문이다. 보다 경제적인 방법은 타동절의 두 핵심 논항 중 하나와 자동절의 핵심 논항이 표지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처럼 논항을 구분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주격-대격 체계, 능격-절대격 체계가 경제적으로 적절한 격 체계이다. 그리고 이들 체계가 범언어적으로 많이 관찰된다는 것은 격의 주요 기능이 구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격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구별은 논항 간의 관계와 기능을 형태적으로 구분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논항 간의 관계를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논항 간의 관계와 기능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면 격이 실현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구별로 기능하는 근거 중 하나로 유형론적으로 주격과 절대격은 영표지로 실현되고 대격과 능격은 비-영표지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들었다. 그리고 해당 양상이 구별 기능의 근거인 이유는 두 논항 중 하나의 논항에 격이 실현되어 관계와 기능이 표시되면, 남은 하나의 논항의 관계와 기능은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논리에 기반하면, 논항들의 관계와 기능을 추론할 수 있으면 이들 논항에 표지가 필수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가. 큰 동물 \emptyset 이 작은 동물 \emptyset 을 먹는다.

나. 작은 동물* \emptyset 이 큰 동물* \emptyset 을 먹는다. (한용운 2003: 30)

다. 중국 \emptyset 의 사람

라. 운명*Ø/의 종소리 (김민국 2016: 53)
마. 지호*Ø/가 집에 간 게 아니라 영지*Ø/가 집에 갔어.
(이준희 2024: 71)

이들 예문을 보면, (3가)와 (3나)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가 동일하고 사태 내 참여자도 동일하지만 격조사 실현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3다)와 (3라)의 경우 동일한 격조사인 ‘의’가 쓰였지만 실현 양상은 다르게 관찰된다. 그리고 (3마)는 주격이 실현되었을 때와 비실현되었을 때의 의미가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는 문장 내에서 각 논항이 지니는 관계와 기능을 추론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3가)와 (3나)에서는 소위 백과사전식 지식이 추론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백과사전식 지식을 통해 일반적으로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3가)는 이러한 일반적인 인지에 부합하기에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아도 각 논항이 맺는 관계를 추론할 수 있지만, (3나)는 일반적인 인지와는 반대되기에 격조사가 실현되어 각 논항이 맺는 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어 격조사 실현·비실현 양상에 논항들의 관계 및 기능 추론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서인(2017: 250-251)에서는 21세기 세종 계획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 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⁴⁾

〈표 1〉 신서인(2017: 251)의 논항의 개수에 따른 조사 생략 경향

조사가 생략된 논항의 개수	문형 내 논항의 개수	조사 생략 비율	빈도	논항 개수별 문형 빈도	문형별 조사 생략 비율
1	1	1.00	2,218	42,548	5.21
1	2	0.50	2,423	23,310	10.39
2	2	1.00	102	23,310	0.44

4) 볼드 표시는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1	3	0.33	1,752	7,602	23.05
2	3	0.67	87	7,602	1.14
3	3	1.00	3	7,602	0.04
1	4	0.25	494	1,416	34.89
2	4	0.50	66	1,416	4.66
3	4	0.75	4	1,416	0.28
1	5	0.20	82	179	45.81
2	5	0.40	36	179	20.11
3	5	0.60	1	179	0.56
1	6	0.17	4	10	40.00
2	6	0.33	2	10	20.00
1	7	0.14	2	4	50.00
2	7	0.29	1	4	25.00
총계			7,277		

위의 표를 보면, 각 문형마다 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논항이 1개인 경우가 비율이 가장 높고, 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논항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논항이 많아질수록 관계와 기능을 추론해야하는 논항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신서인(2017: 251)에서는 이를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조사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이 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각 논항이 지닌 관계와 기능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 문장이 중의적이지 않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논리는 그간 한국어의 구어에서 조사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한 것 역시 설명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구어에서 조사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을 주어 확인의 확실성(김지은 1991), 활성화된 대상(임홍빈 2007), 현장성(김지현 2007), 직관성(김태인 2021)으로 설명하고 있다.

(4) 가. A: 백양로로 왔니?

B: 응, {길이/^ㅁ길} 너무 미끄러워서 고생했어.

C: 응, {백양로가/백양로} 너무 미끄러워서 고생했어.

(김지은 1991)

나. 철수는 지난 일요일 {저 산에/저 산} 갔다.

다. 어랍쇼? {팔이/^ㄹ팔} 아파.

(임홍빈 2007)

라. (자신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에서) 아, 형 부지점 장이에요?

(김지현 2007)

마. (엄마가 딸에게 퇴근하지 않은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 아빠 왜 이렇게 늦는다니.

(김태인 2021)

김지은(1991)에서는 (4가C)와 같이 여러 요인에 의해 해당 논항이 주어임이 확실하다면 주격표지가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어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형태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논항이 맺는 관계와 기능이 명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홍빈(2007)에서는 (4나)와 소위 즉발문인 (4다)를 비교하여 활성화의 정도가 높으면 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⁵⁾ 해당 논의에서 한정성 및 전제를 통해 활성화의 정도를 판별하는 것으로 보아 이때의 활성화 정도는 담화 내에서의 활성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담화 내에서 활성화 정도가 높다는 것은 화청자의 인식에 해당 논항이 맺는 관계와 기능이 명확하다는 것을 뜻한다. 김지현(2007)에서는 (4라)와 같이 현장에 있는 명사의 경우 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장에 존재하는 논항은 그 논항이 지니고 있는 관계와 기능을 추론할 수 있는 요소를 현장에서 즉시 획득하기 용이하다 할 수 있다. 즉, 논항이 맺고 있는 관계를 추론하기가 용이해지는 것이다. 김태인(2021)에서는 (4마)와 같은 예문을 통해 화청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대상의 경우 직관성이 높아 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⁶⁾ 이때 화자와 청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은 해당 논항이 맺고 있는 관계와 기능을 추론하기 용이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5) 임홍빈(2007: 91)에서는 (4다)에서 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를 문법성이 낮은 것으로 판별하고 있으나, 필자에게는 정문이다.

6) 해당 논의에서의 직관성이란 화자나 청자가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수 있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구어에서의 조사 실현의 요인들도 해당 논항이 맺고 있는 관계와 기능을 추론하여 인지할 수 있다면 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더불어 해당 논리대로 격조사 실현 양상을 설명한다면, 문어보다 구어에서 격조사 실현이 수의적인 이유 역시 설명할 수 있다. 문어의 경우 글이라는 한정된 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지만, 구어는 발화뿐만 아니라 그 외에 시각, 청각 등과 같은 여러 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논항의 관계 · 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기에 문어보다 구어가 격조사 실현이 수의적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격 범주를 논항인 명사가 맺는 통사, 의미, 화용 관계를 형태적으로 표시해주는 체계, 즉 형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어의 격조사 실현 · 비실현 양상을 격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구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별은 격이 논항 간의 관계와 기능을 형식적으로 표시하여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항 간의 관계와 기능을 형식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요구되지 않으면 격이 필수적으로 실현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논항 간의 관계와 기능을 형식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면 격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여러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소위 백과사전식 지식에 의해 사람들의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사태의 경우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아도 문장 성립이 자연스러우나, 그에 반하면 격조사가 실현되어 각 논항의 관계와 기능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논항의 관계와 기능이 명확하게 하나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격조사로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격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논항의 관계와 기능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면 논항의 관계와 기능이 다르게 해석되어 문장이 본래 뜻하고자 하는 바와 달라질 수 있기에 격조사가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간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문어보다 구어가 상대적으로

격조사 실현이 수의적일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한 바 있다. 이들 요인들의 경우에도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와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더불어, 이 글의 논리로 본다면, 문어보다 구어에서 격조사 실현이 보다 수의적일 수 있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구어가 보다 격조사 수의적일 수 있는 이유는 문어보다 구어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논항의 관계와 기능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격조사 실현 양상은 논항의 관계·기능 추론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양한 것이 존재하는데, 우선, 앞서 언급한 백과사전식 지식과 발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화용적 요인이 있다. 다만, 이들은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른 것이기에 보다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보다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유정성과 어순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⁷⁾

3. 논항의 관계·기능 추론과 유정성과 어순

이 장에서는 유정성과 어순이 논항의 관계와 기능을 추론하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유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Silverstein(1976: 113)에서는 유정성의 정도에 따라 본유적으로 A와 O가 되기 쉬운 명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⁸⁾ 해당 논의에 따르면, 유정성의 정도가 높은 명사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 내에서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에 본유적으로 A로 기능하기 용이하고, 유정성의 정도가 낮은 명사는 사태 내에서 행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본유적으로 O로 기능하기 용이하다.

7) 이는 유정성과 어순이 범언어적으로 쉽게 관찰되는 요소이면서, 언어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8) A와 O는 타동질의 주어와 타동질의 목적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언어유형론 논의에서 관습적으로 사용 되는 용어이다(Comrie 1989, Dixon 1994, Song 2001: 140 등 참조).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유정성 정도에 따라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 Foley(2007: 413-415)와 Dixon(2010: 138)에서는 이러한 위계가 인칭 까지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위계를 제시한다.

(5) Dixon(2010: 138)의 명사 위계(nominal hierarchy)

1인칭	2인칭	3인칭, 지시사	고유 명사	일반 명사		
				인간	유정물	무정물

왼쪽으로 갈수록 A로 기능하기 용이함.

Dixon(2010: 138)에서는 위의 위계에서 좌측에 위치할수록 A로 기능하기 용이하며, 우측에 위치할수록 O로 기능하기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논의에서는 인칭 간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1인칭과 2인칭은 발화 행위의 참여자이기에 상대적으로 3인칭보다 유정성 정도를 높게 인지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Foley 2007: 413). 이러한 설명은 적절하나, (5)의 위계를 범언어적으로 보편적인 유정성 위계로 설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유정성이 문법적으로 엄밀하게 반영되는 언어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Dixon(2010: 138)의 위계는 능력-절대적 체계와 주격-대격 체계가 함께 나타나는 소위 분열된 격표시 체계를 지닌 언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1인칭, 2인칭, 3인칭, 지시사, 고유명사 부분이 능력-절대적 체계와 주격-대격 체계가 맞물리는 부분이기에 해당 언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다. Croft(1990: 129-130)에서는 위와 같은 체계는 확장된 유정성 체계(extended animacy hierarchy)로, 인칭 체계, 지시성 체계, 유정성 체계로 구성된 것이며, 진정한 유정성 체계는 ‘인간>유정물>무정물’이라 주장한다. 더불어 Blake(2004: 139)에서도 유정성 위계가 격 표시 차원에서 보다 잘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유정물>무정물’로 간략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위계는 유정성 위계가 문법적으로 엄밀하게 반영되는 언어를 위한 것이며, 보다 보편적인 유정성 위계는 ‘인간>유정물>무정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인간>유정물>무정물’인 유정성 위계가 언어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매우 쉽게 관찰할 수 있다.

(6) Navajo(Willie 2000: 364)

- 가. Ashkii ʔi yi-ztaʔ
 boy horse DR-kick.TAM
 ‘The boy kicked the horse.’
 나. Ashkii ʔi bi-ztaʔ
 boy horse INV-kick.TAM
 ‘The horse kicked the boy.’

나바호어(Navajo)를 비롯한 알곤킨제어(Algonkian)에는 역전태(inverse voice)라는 것이 존재한다. 역전태는 사태에 참여한 두 참여자가 유정성 위계와 의미 역할 위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태로, 위계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역전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뜻한다(Givón 1994: 3-36, Croft 2001: 286, Nichols 2017: 721 등). 위의 예문을 보면, 사태 참여자와 어순은 동일한데 서술어에 결합한 접두사가 ‘yi-’와 ‘bi-’로 차이가 나타난다. 이 중 ‘bi-’가 결합한 (6나)는 일반적인 유정성 위계와는 다르게 ‘horse’가 행위의 주체이며 ‘boy’가 행위의 대상이다. 즉, 예문 (6나)가 유정성 위계와 의미 역할 위계가 일치하지 않는 역전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bi-’라는 접두사를 서술어에 결합하여 표시하고 있다.

한국어에서도 유정성 위계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왕왕 발견된다.

(7) 가. 준호가 공을 쫓는다.

- 나. *공이 준호에게 쫓긴다.
 다. *칼이 민호를 찔렀다.
 라. 민호가 칼에 찔렸다.

한국어에서는 주어로 유정성 정도가 높은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Song 1987: 74-76, 연재훈 2011: 157). 위의 예문을 보

면, (7나)와 (7다)는 유정성 정도가 낮은 ‘공’과 ‘칼’이 주어 위치에 나타난 것으로, 문장 성립이 어렵다. 이와는 다르게 (7가)와 (7라)는 유정성 정도가 높은 요소가 주어 위치에 실현되었으며,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위에서 살펴본 나바호어가 사태 내에서의 의미 역할과 유정성 위계 간의 일치 여부에 따라 역전태가 나타났다면, 한국어의 경우 문법기능 위계와 유정성 위계가 일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⁹⁾ 그리고 이를 통하여 유정성 위계가 한국어의 격조사 실현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문법기능 위계와 유정성 위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법기능 위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법기능 위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8) 문법기능 위계(Levin & Rappaport Hovav 2005: 142)

주어(subject) > 목적어(object) > (간접 목적어(indirect object)) > 사격논항(oblique)

위와 같은 문법기능 위계가 설정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문법 현상이 위계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이다. 위계 설정의 시작이었던 관계절의 핵어 명사 가능 여부를 예로 들자면, 어떠한 언어에서 간접 목적어가 관계절의 핵어 명사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상위 위계에 있는 주어, 목적어의 경우에도 관계절의 핵어 명사가 되는 것이 가능하고 그보다 낮은 위계인 사격논항은 불가능하다(Keenan and Comrie 1977, Comrie 1989: 156). 이처럼 기준이 되는 위치는 각 언어마다 다르지만 위와 같은 위계에 따라 문법 현상이 나타나는 양상은 대체로 유사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양상도 문법기능 위계 설정의 대표적인 근거이다.

(9) Turkish(Comrie 1989: 175-176)

가. Hasan öl-dü

9) 위 문단에서 ‘주어로 유정성 정도가 높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 ‘문법기능 위계와 유정성 위계가 선호하는 경향’이라 표현한 것은 이들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Hasan.NOM die-PAST

‘Hasan died.’

나. Ali Hasan-1 öl-dür-dü

Ali.Nom Hasan-ACC die-CAUS-PAST

‘Ali killed Hasan.’

다. Müdür mektub-u imzala-d 1

director.NOM letter-ACC sign-PAST

‘The director signed the letter.’

라. Ali mektub-u Müdür-e imzala-t-t 1

Ali.NOM letter-ACC director-DAT sign-CAUS-PAST

‘Ali got the director to sign the letter.’

예문 (9나)와 (9라)는 각각 (9가)와 (9다)에서 사동주가 새로 추가된 사동문이다. 확인할 수 있듯이 (9가)와 (9다)에서 주어였던 ‘Hasan’과 ‘Müdür’는 사동주가 새로 들어와 주어의 자리를 차지하자, (8)에서 제시한 위계를 따라 비어있는 가장 상위 기능으로 위치한다. (9나)에서는 목적어가 위계에서 비어있는 가장 상위 기능이기예 목적어로 기능하며, (9라)에서는 목적어로 이미 기능하는 ‘mektub’가 있기에 위계상으로 그 다음으로 높으면서 비어있는 사격어로 실현된 것이다. 이처럼 위계에 따라 본래 주어로 기능하던 논항의 위치가 정해진다. 이외에도 격표지, 일치, 어순 등 다양한 문법현상을 통하여 문법기능 위계를 확인할 수 있다(Levin & Rappaport Hovav 2005: 142-143).

이처럼 문법기능 위계는 ‘주어>목적어>(간접 목적어)>사격논항’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유정성 위계는 ‘인간>유정물>무정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는 유정성 위계가 높은 요소가 문법기능 위계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즉, 유정성 위계가 높을수록 문법기능 위계가 높은 주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위계에 해당하면 목적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정성과 관련된 정보를 통하여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아도 각 논항의 문법기능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10) 가. 승우가 밥을 먹고 갔어.
 나. 승우 밥 먹고 갔어.
 다. 강아지가 주인을 찾았다.
 라. ?#강아지 주인 찾았다.

예문 (10가)에는 사태 내에 ‘승우’와 ‘밥’이 논항으로 실현되어 있으며, 이들의 유정성 위계는 ‘승우’가 ‘밥’보다 높다. 그리고 문법기능 위계 측면에서 보면 주어 위치에 ‘승우’가, 목적어 위치에 ‘밥’이 실현되어 결과적으로 유정성 위계와 문법기능 위계가 일치하는 양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처럼 일치하기에 (10나)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에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아도 문장 성립이 자연스럽다. 반면에 (10다)의 ‘강아지’와 ‘주인’은 유정성 위계상으로는 ‘주인’이 더 높지만, 문장에서는 ‘강아지’가 주어로, ‘주인’이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즉, 유정성 위계와 문법기능 위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10라)와 같이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면 문장 성립이 모호해지거나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특징적인 점은 (10라)의 다른 의미가 ‘(내가) 강아지의 주인을 찾았다.’라는 것으로, 화자가 주어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두 논항의 유정성 위계가 동등한 경우에도 관찰된다.

- (11) 가. 익준이가 송화를 데려왔어.
 나. ?#익준이 송화 데려왔어.
 다. 윤복이가 홍도를 혼냈어.
 라. ?#윤복이 홍도 혼냈어.

예문 (11가)와 (11다)는 사태 내 참여자인 두 논항의 유정성 위계가 동일하며, 이로 인해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면 (11나), (11라)와 같이 문장 성립이 모호하거나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때 (11나), (11라)의 다른 의미도 ‘(내가) 익준이와 송화를 데려왔어.’, ‘(내가) 윤복이와 홍도를 혼냈어.’로 화자가 주어로 설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언급한 1인칭과 2인칭이 발화행위의 참여자이기에 유정성 위계에서 높은 위치

를 차지한다는 Foley(2007: 413)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어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긍정성 위계가 문법기능 위계와의 관계에 따라 논항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어순은 각 논항의 위치를 토대로 논항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각 논항이 문법기능에 따라 문장 내에서의 전형적인 위치가 있어, 문장 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논항이 주어로 기능한다든가, 서술어의 앞에 위치한 논항이 목적어로 기능하는 등 위치를 통해 논항의 문법관계와 기능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각 언어마다 기본 어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기본 어순은 해당 언어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어순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기본 어순은 화용적으로 중립적이고 전형적인 타동절을 기준으로 설정한다(Siewierska 1988: 8 참조). 또한 빈도와 유표성 역시 기본 어순 설정과 관련된다(Comrie 1989: 88, Whaley 1997: 100-104). 러시아어는 비교적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에 해당하여, SVO 어순과 SOV 어순이 모두 나타난다고 한다. 이 중 러시아어의 기본 어순은 SVO 어순으로 설정하는데, 그 이유는 SVO 어순이 SOV 어순보다 빈도가 더 높아 사람들이 형식적 표지가 없을 때 SVO 어순으로 해석하는 것을 인지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표적으로 나타나는 어순이 기본 어순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유표적인 상황이면 기본 어순이 아닌 어순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2) 가. Over the hill came the troops.

나. Beans, I like.

영어의 기본 어순은 SVO 어순이지만, 예문 (12가)와 같이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교체되거나 (12나)와 같이 목적어가 문장의 앞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관찰된다. 다만, 이들이 성립되는 경우는 유표적인 상황이다. (12가)는 텍스트의 도입부에서 설정을 묘사하는 경우에만 성립 가능하며, (12나)는 'beans'에 강한 억양을 나타내고 뒤이어 휴지가 나타나는 유표적인 억양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처럼 기본 어순은 빈도가 높고 무표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한국어의 어순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3) 가. 준완이는 고기를 먹고 왔어.
 나. 준완이는 먹고 왔어 고기를.
 다. 고기를 준완이는 먹고 왔어.
 라. 고기를 먹고 왔어 준완이는.
 마. 먹고 왔어 준완이는 고기를.
 바. 먹고 왔어 고기를 준완이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의 경우 다양한 어순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어의 이러한 양상은 앞선 영어 예문과는 다르게 텍스트의 특정 위치나 특정한 억양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경우에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한국어를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로 분류하기도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기본 어순을 SOV 어순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어순이 위와 같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격조사가 결합하여 각 논항의 역할을 표시하기 때문이다(이익섭 외 1997: 205).

- (14) 가. 송화가 소고기를 먹었어.
 나. 소고기를 송화가 먹었어.
 다. 송화 소고기 먹었어.
 라. ^{??}소고기 송화 먹었어.

위의 예문을 보면, 격조사가 실현된 (14가)는 (14나)와 같이 어순이 교체되어도 문장 성립이 자연스럽다. 반면에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14다)는 (14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순을 교체하면 문장 성립이 모호해진다. 앞서 격의 주요 기능이 논항이 문장 내에서 지니는 문법관계와 기능을 형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4가), (14나)와 같이

격조사가 실현되면 각 논항의 문법관계와 기능이 형식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어순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면 기본 어순에 기반하여 문장을 해석한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러시아어의 기본 어순이 SVO 어순인 이유 중 하나로 형식적 표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SVO 어순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동일하게, (14라)와 같이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고 어순이 뒤바뀐 경우가 어색한 이유는 해당 예문을 한국어의 기본 어순인 SOV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어의 기본 어순은 SOV 어순이며 사람들이 각 논항의 기능을 해당 위치로 해석한다. 이로 인해 기본 어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아도 문장 성립이 가능하다.

이처럼 유정성 위계와 기본 어순은 문장 내 논항이 맺는 관계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부합하면 격조사는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유표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유정성 위계와 기본 어순에 부합하는 것은 무표적인 상황으로, 유정성 위계와 기본 어순에 어긋나는 것은 유표적인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15) 가. 야구방망이가 콧잔등을 때렸어.

나. ?#야구방망이 콧잔등 때렸어.

다. 겨울이를 정원이가 좋아해.

라. #겨울이 정원이 좋아해.

(15가)와 (15나)는 유정성 위계와 문법기능 위계가 불일치하는 예문이며, (15다)와 (15라)는 기본 어순이 아닌 예문이다. 이들을 보면,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15나), (15라)는 문장 성립이 어려우나, 격조사가 실현된 (15가)와 (15다)는 문장 성립이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유정성 위계와 기본 어순에 부합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무표적인 것이며, 이들이 어긋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유표적인 것이기에 격조사로 이를 표시하면 문장이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항의 관계와 기능을 추론하

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정성과 어순을 살펴보았다. 먼저, 유정성은 정도성에 따라 본유적으로 사태 내에서 A와 O로 기능하기 용이한 경우로 구분하여 일정한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때의 위계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위계는 ‘인간>유정물>무정물’이다. 유정성 위계는 다양한 언어의 언어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국어에서도 쉽게 관찰된다. 한국어에서는 유정성 위계가 높을수록 문법기능 위계에서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한국어의 주어로 유정성이 높은 요소가 오는 것을 선호하는 양상을 통하여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정성 위계와 문법기능 위계가 이러한 관계를 맺기에, 유정성은 언어외적인 요소이지만 정도에 따라 각 논항이 맺는 관계와 기능을 추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어순은 각 논항이 지닌 관계와 기능에 따라 문장 내에서의 전형적인 위치가 정해져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기본 어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본 어순은 화용적으로 중립적이고 무표적이며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타동절로 설정하며, 이에 근거하여 한국어의 기본 어순은 SOV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논항의 위치를 토대로 해당 논항이 맺고 있는 관계와 기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유정성과 어순은 논항의 관계와 기능을 추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해당 요인들이 부합 여부에 따라 격조사 실현 · 비실현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격조사 실현 · 비실현되는 데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다. 각 요인에 부합하더라도 격조사가 실현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요인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각 요인의 작용 여부에 따른 격조사 실현 양상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4. 유정성 · 어순과 격조사 실현 양상

한국어 격조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구별이며, 이 기능을 고려하면 한국어의 격조사 실현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격조사는 사태 내에서 논항이 나타내는 관계와 기능을 형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각 논항 간의 관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형태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문장 내 실현된 논항 간의 관계가 구분된다면, 격조사 실현이 수의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논항의 관계와 기능을 구분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유정성과 어순이 있다.

이 장에서는 유정성과 어순이 격조사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격조사 실현 양상과 유정성, 어순의 부합 여부로 가능한 조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격조사 실현 양상은 주격조사, 대격조사 모두 실현되지 않은 경우, 주격조사만 실현된 경우, 대격조사만 실현된 경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¹⁰⁾ 다음으로, 유정성과 어순으로 가능한 조합은 유정성과 어순 모두 부합하는 경우, 유정성은 부합하고 어순은 어긋나는 경우, 유정성은 어긋나고 어순은 부합하는 경우, 유정성과 어순 모두 어긋나는 경우로 네 가지이다. 이 글은 유정성과 어순이 격조사 실현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에 격조사 실현 양상의 경우의 수를 기준으로 유정성과 어순의 경우의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¹¹⁾

10) 주격조사와 대격조사가 모두 실현된 경우는 유정성과 어순이 부합하지 않아도 문장 성립이 가능하기에 경우의 수에서는 제외하였다.

11)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4장에서 다양한 예문들을 보다 엄밀하게 변인을 통제하여 제시하는 것을 제안해주셨다. 이는 매우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된다. 결론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격조사 실현 양상이 아닌 임의로 생성한 일부 예문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이 글의 한계 중 하나이다. 다만, 이 글의 목적이 한국어 격조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기에, 다양한 예문보다는 관련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예문으로 한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말씀해주신 다양한 예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후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4.1. 주격조사와 대격조사가 모두 실현되지 않은 경우

격조사가 모두 실현되는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가. 준완이가 고기를 먹어.

나. 준완이 고기 먹어.

다. 책을 익준이가 읽고 있어.

라. *책 익준이 읽고 있어.

마. 기계가 작업자 손 찍었어.

바. *기계 작업자 손 찍었어.

사. 폰이 떨어지면서 얼굴을 폰이 때렸어.

아. *폰이 떨어지면서 얼굴 폰 때렸어.

예문 (16가), (16나)는 유정성과 어순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이며 (16사), (16아)는 유정성과 어순 모두 어긋나는 경우이다.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두 경우는 각각 격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들은 여러 경우의 수 중에 양 극단에 해당하기에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16다), (16라)는 유정성은 부합하고 어순은 어긋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면 문장 성립이 어렵거나 모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모호할 수 있는 것은 유정성을 토대로 하여 행위의 주체와 대상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유정성 위계에서 위계가 더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행동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이다(Comrie 1989: 127-129, Dixon 1994: 84-85). 이러한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에 근거하여 (16라)와 같은 사태를 해석하면 행위의 주체와 대상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모호하게나마 예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상에서는 문법성 판단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 (17) 가. 그 책 송화 읽고 있어.
 나. 이기적 유전자 송화 읽고 있어.
 다. 그 과자 준완이 사왔어.
 라. 초코하임 준완이 사왔어.

예문 (17가), (17다)는 목적어인 논항에 지시관형사가 결합한 것이며, (17나), (17라)는 고유명사가 목적어 논항으로 나타난 것이다.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앞선 경우인 (16라)보다는 문법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들이 담화 구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¹²⁾

구정보와 신정보는 판별 층위에 따라 담화 지시체의 인지적 지위에서의 신구성과 문장의 화용적 구조로서의 신구성으로 구분된다(임동훈 2012: 223, 최윤지 2019: 28-29, 최윤지 2021: 96 등). 이들은 전자는 지시적 주어집성, 후자는 관계적 주어집성으로 명명된다.¹³⁾ 지시적 주어집성은 발화에 포함된 명사구가 가리키는 실체가 청자의 담화 세계에서 주어진 정보인지, 새로운 정보인지 판별하는 것을 말하며, ‘담화 구정보>담화 신정보/청자 구정보>청자 신정보’로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최윤지 2019: 30-42).

그리고 위와 같이 지시관형사가 결합하거나 고유명사가 나타나면, 이들은 담화 구정보로 해석된다. 최윤지(2019: 93-105)에서는 생략형(명형대명사),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등을 활성화된 담화-구 실체를 나타내는 요소로 분류하며 선행어와 가까이 실현되고, 동일지시 관계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예문 (17) 역시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2)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4장에서 여러 양상을 정보구조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인해 이 글의 주장 중 하나인 유정성과 어순이 격조사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혹여 약화될까 우려를 표하셨다. 다만, 여기서 정보구조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유정성과 어순이 영향에도 불구하고 문법성이 좋아지는 양상이기에 논의의 주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 글의 주요 주장은 격의 구별 기능에 입각하여, 논항이 맺고 있는 관계와 기능을 인지·추론할 수 있다면 격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인지·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유정성과 어순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논의에서 간략하게 후술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구조 역시 유정성, 어순과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13) 이들 층위는 논의에 따라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과 문장의 화용론적 관계(Lambrecht 1994), 지시적 주어집성과 관계적 주어집성(Gundel & Fretheim 2004), 절대적 정보구조와 상대적 정보구조(최윤지 2019) 등으로 지칭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이들의 특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주는 지시적 주어집성과 관계적 주어집성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들 예문에 되도록 근접하게 ‘여기 있던 책(이기적 유전자) 못 봤어?’, ‘이 과자(초코하임) 누가 사왔어?’와 같은 질문이 선행하는 담화에 발화되거나, 책(이기적 유전자)을 찾거나 과자(초코하임)를 먹는 등의 행동이 가까운 맥락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목적어가 지시적 주어집성이 담화 구정보이고, 활성화의 정도가 높으면 유정성에는 부합하고 어순에 어긋나는 경우라도 격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활성화된 담화 구정보인 경우 격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논항의 관계와 기능을 인지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격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것과 관련된다. 담화 내에서 구정보이고 활성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해당 논항의 관계와 기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계적 주어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17)과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관계적 신정보인 경우는 상정이 어렵다. 관계적 주어집성은 문장을 X와 Y로 이분하였을 때, 상대적인 정보 지위를 판별하는 것이다 (Gundel & Fretheim 2004: 176-177, 박진호 2015: 384).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이들의 정보 지위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가장 잘 알려진 판별 방법으로는 의문사가 나타나는 맥락을 형성하여 대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의문사는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이기에, 문장 내 어떠한 요소가 선행하는 의문사에 대응된다면 그 요소는 정보적 기여도가 높은 것이 된다. 이를 토대로, 위의 예문의 맥락들을 형성하면 다음과 같은 양상이 관찰된다.

- (18) 가. A: 그 책 누가 읽고 있어?
 B: 그 책 송화 읽고 있어.
 나. A: 그 책 어디 갔지?
 B: 그 책 송화 읽고 있던데?
 다. A: 무슨 책 송화 읽고 있어?
 B: *이기적 유전자 송화 읽고 있어.
 라. A: 송화 뭐해?

B: *이기적 유전자 송화 읽고 있어.

예문 (18가)와 (18나)에서는 각각 의문사에 대응하는 것이 ‘송화’와 ‘송화가 읽고 있다.’로, 문장 성립이 자연스럽다. 이와는 다르게, ‘이기적 유전자’와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있다’가 의문사에 대응하는 (18다)와 (18라)는 문장 성립이 어렵다. 이와 같은 대응 양상을 통하여 유정성은 부합하고 어순은 어긋난 경우에는 목적어가 관계적 구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16마), (16바)는 유정성은 어긋나고 어순은 부합한 경우이다. 확인할 수 있듯이, 이때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면 문장 성립이 어렵거나 기존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 해석되는 다른 의미는 ‘(내가 또는 담화에서 활성화된 누군가가) 기계 작업자(의) 손을 찍었어.’와 같이 화자나 담화에서 활성화된 생략형(영형대명사)이 행위의 주체인 경우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1인칭과 2인칭의 유정성 위계가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동사와 주어보다 동사와 목적어가 통사·의미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Tomlin(1986)에서는 명사 포함과 속어 형성이 주어, 동사 관계에서보다 목적어, 동사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과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 의존첨사, 부정어, 부사어 등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에 근거하여 주어와 동사보다 목적어와 동사가 통사·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⁴⁾ 이를 토대로 보면, (16바)가 화자 또는 영형대명사를 행위의 주체로 파악하고 ‘기계’와 ‘작업자 손’을 합쳐 목적어로 보는 의미가 생성되는 것은 주어보다는 목적어가 서술어와 보다 밀접하기에 문장에 실현된 요소 전체를 목적어로 우선 파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4) Tomlin(1986)의 이 주장은 범언어적으로 SOV, SVO 어순이 지배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논의에서는 이 글에서 언급한 동사-목적어 결속 원리(verb-object bonding principle) 외에 주제 우선 원리(theme first principle), 유정성 우선 원리(animated first principle), 동사-목적어 결속 원리(verb-object bonding principle)로 범언어적으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어순을 설명한다.

4.2. 주격조사만 실현된 경우

주격조사만 실현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19) 가. 정원이가 여행계획을 구상했다.

나. 정원이가 여행계획 구상했다.

다. 쓰레기를 석형이가 치웠어.

라. 쓰레기 석형이가 치웠어.

마. 이불이 강아지를 덮었다.

바. 이불이 강아지 덮었다.

사. 사육사를 판다가 도와줬어.

아. 사육사 판다가 도와줬어.

예문 (19가)와 (19나)는 유정성과 어순 모두 부합하는 경우, (19다)와 (19라)는 유정성은 부합하고 어순은 어긋난 경우, (19마)와 (19바)는 유정성은 어긋나고 어순은 부합하는 경우, (19사)와 (19아)는 유정성과 어순 모두 어긋난 경우이다.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격조사가 주어에만 실현되어도 문장 성립이 자연스럽다.

이는 격의 주요 기능인 구별과 관련된다. 앞서 격의 주요 기능 중 하나를 구별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주격과 절대격은 영표지로 실현되고 대격과 능격은 비-영표지로 실현되는 경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경향이 근거인 이유는 두 논항 중 하나에만 표지가 실현되어도 두 논항을 구분하는 데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예문 (19)도 주어에 격조사가 실현되어 두 논항 중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게 밝혀져 문장 내 논항들의 관계와 기능이 명확해졌기에, 유정성과 어순의 부합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문장이 성립되는 것이다.

4.3. 대격조사만 실현된 경우

대격조사만 실현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 (20) 가. 준서가 샌드백을 때렸어.
 나. ?*준서 샌드백을 때렸어.
 다. 뜬 공을 포수가 잡았어.
 라. *뜬 공을 포수 잡았어.
 마. 강아지가 주인을 찾았다.
 바. #강아지 주인을 찾았다.
 사. 전문 인력을 회사가 고용했다.
 아. *전문 인력을 회사 고용했다.

위의 예문은 각각 유정성과 어순 부합 여부의 여러 경우의 수에 해당한다.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목적어에 격조사가 실현되고 주어에 실현되지 않으면 문장 성립이 모호하거나 어렵다. 이는 매우 특징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격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논항 간의 관계와 기능을 구분하는 구별이며, 두 논항 중 하나의 논항에만 표시가 되어도 논항을 구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주격조사만 실현되었을 때 두 논항을 구분할 수 있어 문장 성립이 자연스러웠다. 마찬가지로 예문 (20)도 두 논항 중 하나의 논항에 격조사가 결합하여 표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장 성립이 잘 되지 않는다.¹⁵⁾

앞서 범언어적으로 주격과 절대격은 영표지로 실현되고 대격과 능격은 비-영표지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별의 측면에서 보면, 자동절은 논항이 S 하나 이기에 구분할 논항이 없어 표지가 실현될 필요가 없다. 이를 전제로 타동절을 보면, 타동절은 논항이 A와 O 두 개이기에 이들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주격-대격 체계 언어는 S와 A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기에 A가 영표지로 실현되고, 능격-절대격 체계 언어는 S와 O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기에 O가 영표지로 실현된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격과 절대격이

15)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목적어에만 격조사가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한 문장 내에서 구어성과 문어성이 충돌하기 때문일 가능성을 말씀해주셨다. 구어의 성질과 문어의 성질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에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구어가 문어보다 격조사가 쉽게 비실현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추측된다. 말씀하신 바 역시 가능성이 있으나, 동일한 논리라면 주어에만 격조사가 실현된 경우 역시 충돌이 일어나 문장 성립이 모호하거나 불가능해야 하는데, 이들은 문장 성립이 자연스럽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표지로 실현되고 대격과 능격이 비-영표지로 실현되는 것이다. 다만, 앞선 예문 (19)와 위의 예문 (20)을 보면, 한국어는 주격-대격 체계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과는 다르게 주격이 격표지가 실현되고 대격이 격표지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특징적인 양상이기에 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유정성은 부합하고 어순은 어긋난 (20다), (20라)와 유정성과 어순 모두 어긋난 (20사), (20아)는 목적어에만 격조사가 실현되면 문장 성립이 어렵다. 이들은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주어와 목적어 중 하나의 논항에만 격조사가 실현되어야 한다면 주어에 격조사가 실현되는 것을 선호하는 한국어의 경향에 따른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유정성과 어순 모두 부합하는 예문 (20가), (20나)의 경우 문장 성립이 모호하거나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장이 더 잘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1) 가. A: 무슨 일 있어? 준서 샌드백을 치고 있던데?

B: 아, 다음 경기 잡혔어.

나. A: 아니, 우리 집 고양이 갑자기 풀을 뜯어 먹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랬어.

B: 그거 헤어볼 토하려고 그러는 거래.

위의 예문을 보면, 주어인 ‘준서’와 ‘고양이’에는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았고 목적어인 ‘샌드백’과 ‘풀’에는 격조사가 실현되었지만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외 또는 놀라움 등과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라는 것이다.

관계적 신정보인 초점은 어떠한 요소와 화용적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가로초점과 세로초점으로 세분된다(임동훈 2012: 252, 김민국 2016: 123-124). 가로초점은 전제-초점 구조에서의 초점을 일컫는 것으로, 문장에 실현된 다른 요소들과 관계를 맺는 초점을 말한다. 반면에, 세로초점은 문장에 실현될 수 있는 대안집합 내의 요소들과 관계를 맺는 초점이다. 세로초점은 대안집합을 이루고 있는 요소와의 관계로 인해 ‘대조’, ‘배제’, ‘첨

가’, ‘차선’, ‘비교’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고, 명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때 세로초점의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중에 의외, 놀라움이 있다. 세로초점이 의외, 놀라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대안집합 내의 요소들이 일정한 척도를 지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임동훈 2007, 김민국 2016: 137). 예컨대, 예문 (21나A)의 ‘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대안집합 요소로는 ‘사료’, ‘생선’, ‘육류’ 등과 같이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설정 가능하다. 이들은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먹는 것부터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것까지 일정한 순서로 척도를 이룬다. 그리고 이 예문에서 선택된 ‘꿀’은 이러한 척도 중에 가장 끝값에 해당하기에 놀라움, 의외의 의미가 척도 함축(scalar implicature)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유정성과 어순이 모두 부합한 경우에 목적어가 세로초점에 해당하여 의외, 놀라움을 나타내는 맥락이라면 목적어에만 격조사가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특정하고 제한적인 맥락에서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유정성은 어긋나고 어순은 부합하는 (20마), (20바)는 확인할 수 있듯이, 목적어만 격조사가 실현되면 문장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의 다른 의미는 소유물-소유주 관계인 ‘강아지의 주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1인칭과 2인칭의 유정성 위계가 높은 것과 목적어와 동사가 통사·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것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장에서는 유정성과 어순이 한국어 주격조사, 대격조사의 실현·비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를 조합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주격조사와 대격조사가 모두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정성과 어순이 모두 부합하면 격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고, 유정성과 어순이 모두 어긋나면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면 문장 성립이 어렵다. 유정성은 부합하고 어순이 어긋나는 경우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면 문장 성립이 모호해지는데, 이는 유정성 위계에 따라 각 논항에 관한 정보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당 양상의 경우 목적어에 지시관형사가 결합하거나 목적어가 고유명사로

나타나는 등 담화 구정보에 해당하면 문법성이 보다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유정성이 어긋나고 어순이 부합할 때 격조사가 모두 실현되지 않으면 문장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데, 이때의 다른 의미는 화자나 담화에서 활성화된 생략형(영형대명사)이 행위의 주체인 경우이다. 이러한 해석이 발생하는 것은 유정성 위계에서의 1인칭, 2인칭의 지위 그리고 목적어와 동사의 통사 · 의미적 밀접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주격조사만 실현되는 경우는 유정성, 어순의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가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이는 격의 구별 기능에 의한 것이다. 즉, 주어인 논항에 격조사가 실현되어 해당 논항의 관계와 기능을 형식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장 내 논항의 관계와 기능이 구분되었기에, 유정성과 어순의 부합 여부가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격조사만 실현된 경우는 유정성, 어순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문장 성립이 모호하거나 어려운 양상을 보인다. 이를 통하여, 명확한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어의 경우 두 논항 중 하나의 논항에만 격조사가 실현되어야 한다면 주격조사가 실현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유정성과 어순이 부합할 때, 목적어가 의외, 놀라움을 나타내는 제한적인 맥락인 경우에는 목적어에만 격조사가 실현되어도 문장이 성립되는 양상을 보인다.

5. 나가며

한국어 격조사의 실현 · 비실현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논의에서 폭넓게 다루어진 바가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격조사의 실현 · 비실현 양상을 격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구별 기능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별은 격이 논항 간의 관계와 기능을 형식적으로 표시하여 각 논항을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격을 파악한다면, 형식적인 표시를 통하여 문장 내 논항들을 구분하지 않아도 각 논항이 맺고 있는 관계와 기능을 알 수 있다면, 격이 필수적으로 실현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논항 간의 관계와 기능이 명료하면 격조사가 수의적으로 실현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다양한 양상들이 설명된다. 먼저, 소위 백과사전식 지식에 의하여 사람들이 일반 상식을 통하여 사태의 주체와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격조사 실현·비실현이 자유롭다. 이는 사람들이 일반 상식에 기반하여 문장 내 논항의 정보를 획득하였기에, 격조사를 통하여 형식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종 구문 분석 말뭉치에서 문장 내에서 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논항이 하나인 경우가 비율이 가장 높고, 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논항이 늘어날수록 비율이 낮아지는데, 이는 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논항이 많을수록 추론해야하는 논항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 문어보다 구어에서 격조사 실현이 수의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구어가 언어 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인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논항의 관계와 기능을 추론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한국어 격조사 실현 양상은 논항의 관계·기능 추론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논항의 관계·기능 추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정성과 어순을 살펴보았다. 유정성과 어순을 대표적으로 살펴본 것은 이들이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정보에 해당하며, 범언어적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면서 언어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유정성 분류 방법은 ‘인간>유정물>무정물’이라 할 수 있다. 유정성은 언어외적인 개념이지만, 언어 현상에서 다양하게 관찰된다. 한국어에서는 유정성 위계가 높을수록 문법기능 위계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유정성 위계가 높은 인간의 경우 문법기능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문장 내에서 주로 주어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관련성으로 인해, 각 논항의 유정성 정도가 문장 내에서의 관계와 기능을 추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어순은 각 논항의 관계와 기능에 따라 전형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기본 어순을 전제로 한다. 관점에 따라 한국어를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로 분류하기도 하나, 한국어의 어순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격조사로 각 논항의 관계와 기능을 표시해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본 어순은 화용적으로 중립적이고 무표적이며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타동절로 설정한다. 그리고 해당 기준에 따라 한국어를 살펴보면, 한국어의 기본 어순은 익히 알려져 있듯이 SOV로 설정된다. 각 논항의 위치를 통해 해당 논항의 관계와 기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격조사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긍정성과 어순은 결과적으로 한국어 격조사 실현 · 비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긍정성과 어순에 부합 여부에 따라 격조사 실현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논항의 관계와 기능을 인지적으로 추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부합여부와 격조사 실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주격조사, 대격조사의 실현 양상을 기준으로, 긍정성과 어순의 부합에 따른 문장 성립 여부를 살펴보았다.

먼저, 모든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긍정성과 어순이 모두 부합한 경우에만 문장 성립이 자연스럽다. 긍정성은 부합하고 어순은 어긋나면 문장 성립이 모호해지는데, 이는 긍정성 위계를 통해 각 논항의 역할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경우 목적어의 지시적 주어집성이 담화 구정보에 해당하면 문장 성립이 보다 자연스러워지는데, 이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격조사만 실현된 경우에는 긍정성과 어순의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이는 주어에 해당하는 논항에 주격조사가 실현되어 문장 내 논항 간의 관계와 기능이 파악되었기에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하게 두 논항 중 하나의 논항에 격조사가 실현되었지만, 대격조사만 실현된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격조사만 실현된 경우 긍정성과 어순의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문장 성립이 모호하거나 어렵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경우 두 논항 중 하나의 논항에 격조사가 실현되는 경우

주격조사가 실현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양상에서 유정성과 어순이 부합하는 경우, 목적어에 해당하는 논항이 세로 초점에 해당하여 의외, 놀라움을 나타내는 맥락인 경우에 한해 문장이 성립된다.

이 글에서는 격의 구별 기능에 입각하여 한국어의 격조사 실현·비실현 양상이 논항의 관계와 기능에 대한 인지적 추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이때의 인지적 추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유정성과 어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부합 여부를 통해 격조사 실현·비실현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살펴보는 과정에서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격조사 실현·비실현 양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임의적으로 생성한 일부 문장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불어, 구별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주격조사만 실현된 경우와 대격조사만 경우의 문장 성립 여부가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 논의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기혁(1989), “국어 문법에서의 격의 해석”, 말 14, 5-53.
 김민국(2016), “한국어 주어의 격표지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민수(1970), “국어의 격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49·50, 25-45.
 김지은(1991), “국어에서 주어가 조사 없이 나타나는 환경에 대하여”, 한글 212, 한글학회, 69-87.
 김지현(2007), “한국어 주어의 무조사 현상 연구”, 우리어문연구 28, 우리어문학회, 7-31.
 김태인(2021), “조사가 붙지 않는 명사구의 해석에 관하여”, 한글 82-2, 한글학회, 361-392.
 남기심(2001),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73, 국어학회, 375-435.
- 신서인(2017), 한국어 문형 연구, 태학사.
- 엄정호(2011), “격의 개념과 한국어의 조사”, 국어학 62, 국어학회, 199-224.
-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 이익섭 · 이상익 · 채완(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이익섭 · 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준희(2024), “한국어 조사 ‘을/를’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호승(2006), “격조사 없는 명사구의 격 문제에 대하여”,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139-159.
- 임동훈(2007), “한국어 조사 ‘만’과 ‘도’의 의미론”, 조선학보, 205, 1-20.
- 임동훈(2012), “‘은/는’과 종횡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국어학회, 217-271.
- 임흥빈(2007), “한국어 무조사 명사구의 통사와 의미”, 국어학 49, 국어학회, 69-106.
- 최윤지(2019),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태학사.
- 최윤지(2021), “구정보, 신정보란 무엇인가 -신구성의 구별과 정보구조적 조정-”, 한국어학 91, 한국어학회, 95-126.
- 한용운(2003), 언어 단위 변화와 조사화, 한국문화사.
- 홍윤표(1990), “격조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221-232.
- Blake, J.(2004), *Case*(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rie, B.(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Blackwell.
- Croft, W.(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Croft, W.(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 de Hoop, H. & A. L. Malchukov(2008), Case Marking Strategies, *Linguistic Inquiry* 39-4, 565-587.
- Dixon, R. M. W.(1994), *Erg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xon, R. M. W.(2010), *Basic Linguistic Theory vol 2*, Oxford University Press.
- Foley, W. A.(2007), A typology of information packaging in the clause,

- In Shopen, T.(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I: Clause structure*, 362-446, Cambridge: CUP.
- Givón, T.(1994), *Voice and Invers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undel, J. K. & T. Fretheim(2004), Topic and Focus. In Horn, L. R. & G. Ward(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175-196.
- Keenan, E. L. & B. Comrie(197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 63-99.
- Lambrecht, K.(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 B. & M. Rappaport Hovav(2005), *Argument Re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æss, A.(2007), *Prototypical Transitivity*,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7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Nichols, J.(1992), *Linguistic diversity in space and tim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Nichols, J.(2017), Morphology in Typology, In Andrew Hippisley and Gregory Stump.(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Morp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710-742.
- Siewierska, A.(1988), *Word order rules*, Croom Helm: London.
- Siewierska, A.(1996), Word order type and alignment type, *Sprachtypologie und Universalienforschung* 49: 149-76.
- Silverstein, M.(1976), Hierarchy of Features and ergativity, In Dixon, R. M. W.(ed.), *Grammatical categories in Australian languages*, Humanities Press: Atlantic Highlands, NJ.
- Song, J. J.(2001),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Routledge.
- Song, N. S.(1987), Empathy-based affectedness and passivization,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85-1, The Philological Society, 74-89.
- Tomlin, R. S.(1986), *Basic Word Order: Functional Principles*, Croom Helm Linguistic Series, Croom Helm.

- Whaley, L. J.(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SAGE Publications.
- Wierzbicka, A.(1981), Case marking and human nature, *AJL* 1, 43 - 80.
- Willie, M.(2000), The inverse voice and possessive yi-/bi- in Navajo,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66-3, 360-382.

이준희

동국대학교(강사)

전자 우편 : junhee324@gmail.com

원고 접수일 : 2024. 08. 11.

원고 수정일 : 2024. 09. 13.

게재 확정일 : 2024. 09. 13.